

중소 50대 직장인 월급 381만원 대기업 30대보다 209만원 적어

중기연, 대·중소 임금격차 보고서
중소 전 연령대, 대기업 20대 못 미쳐
평균 월급은 절반 수준인 53.2%
10년 이상 근속해도 격차 여전
성과보상 기반 확충 필요성 제기
급여 지불 여력 확대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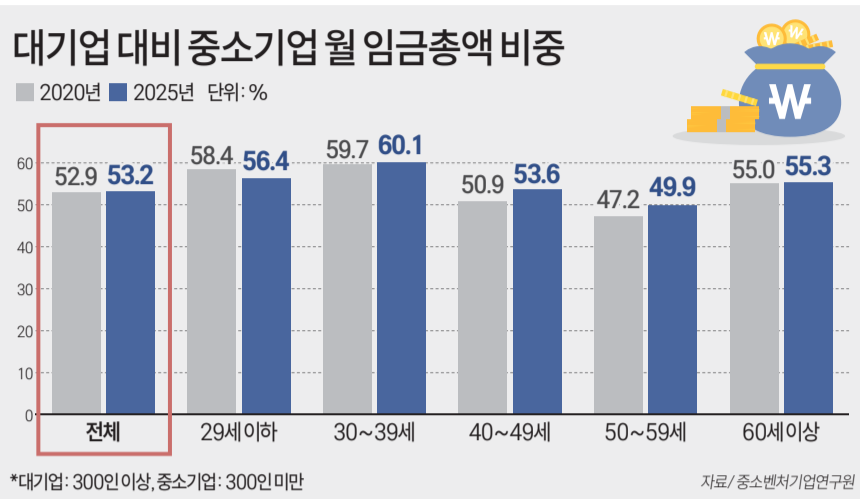
중소기업에 다니는 50대 직장인이 대기업 30대보다 월급을 210만원 가량 적게 받고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모든 연령대 근로자 월급이 대기업 20대의 월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보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급여 지불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8일 내놓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0~59세의 월 임금총액(2025년 기준)은 381만원으로 같은 연령대의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763만원)보다 382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수준인 셈이다. 50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30대 대기업 근로자(590만원)보다 월급이 209만원 적었다.

연령대별 월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29세 이하가 417만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가장 많이 월급을 받는 40~49세(404만



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청년(29세 이하)의 월급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50대는 162%, 대기업 50대는 325%로 각각 나타났다.

보고서를 집필한 중기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29세 이하 청년의 임금 격차가 최근 5년간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년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월 임금총액 비중은 2020년 58.4%에서 2025년엔 56.4%로 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의 이 기간 연 평균 임금총액 인상률도 대기업은 3.9%였지만 중소기업은 3.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 10~15년 일한 근로자 월급은 452만원으로 대기업 1~3년 차(472만원)보다 적었다. 300인 이상 기업의 10~15년 연차 월급은 738만원으로, 같은 연차의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286만원이나 많았다.

또 중소기업의 월 임금총액은 336만원으로 대기업(632만원)의 53.2% 수준이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30~299인 중기업(403만원)은 대기업의 63.8%, 5~29인 소기업(340만원)은 대기업의 53.8%, 4인 이하 소상공인(239만 원)은 대기업의 37.8%로 분석돼 종사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여성의 월 임금총액은 265만원으로 대기업 남성(711만원)의 37.2% 수준에 그쳤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주로 성과급,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과도하게 차이 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중소기업과 재직 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산 지원사업 예산을 늘리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HJ중공업, 자율운항으로 스마트십 강화

HD현대 아비커스와 기술협력 MOU
자체 건조 선박에 솔루션 적용 추진

HJ중공업이 자율운항 솔루션 도입을 통해 스마트십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선박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 수요가 커지자 자체 건조 선박에 관련 솔루션을 적용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HJ중공업은 최근 그리스 아테네 메트로폴리탄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포시도니아(Posidonia)'에서 HD현대 아비커스와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왼쪽)와 강재호 HD현대 아비커스 대표가 지난 4월 그리스 아테네 메트로폴리탄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된 포시도니아에서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 및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J중공업

HD현대 아비커스는 HD현대가 지난 2020년 설립한 선박 자율운항 솔루션 전문 자회사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 상선용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인 '하이마스 컨트롤(HiNAS Control)'을 개발했으며, 2022년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HJ중공업이 개발·건조하는 선박에 하이마스 컨트롤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자율운항 선박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에서는 디지털 화와 자율운항 선박 수요가 확대되면서

선박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십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율운항 기술은 항해 지원과 충돌 위험 저감, 운항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차세대 선박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HJ중공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십과 디지털 선박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운항 기술 적용 선박의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번 협약은 회사의 자율운항 선박 개발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 기술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중기부, 성과 낸 직원에 8400만원 특별포상

모두의 창업 TF 3700만원 받아
중동전쟁 대응 TF는 4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적 현안 해결과 탁월한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총 8400만원의 특별성과 수시 포상을 실시했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은 기존 평가 체계로 적시 보상이 어려운 성과를 즉시 발굴·보상에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국정 현안 대응 등 긴급성이 높은 과제 ▲객관적인 수치 등을 통해 성과 입증 가능한 과제 ▲국무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과제 등을 중심으로 후보 과제를 선정한 뒤 부내 공적 검증과 민관 합동 공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건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 '모두의 창업 TF'는 프로젝트 개시 약 50일 만에 6만20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내

며 정부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공모로 3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중동전쟁 대응 TF에는 4200만원이 돌아갔다. 해당 TF는 위기 발생 당일 수출 지원센터에 피해신고 창구를 설치해 중소기업 피해 애로를 파악하고 관련 협단체와 소통채널을 구축했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지속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배선욱 주무관은 기존 동행축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수제버거 페스티벌을 기획, 전국 최초의 동행축제 신판매진 모델을 창출해 500만원을 받았다.

특별성과 수시포상 이후에는 '직함은 로그아웃(Log-out), 소통은 로그인(Log-in)'을 주제로 MZ어벤져스스타트업 데이가 열렸다.

/김승호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K-팜테크 유망기업 25곳 선정·본격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난임 시술 기술부터 안전까지 여성의 삶을 혁신할 'K-팜테크' 유망 기업 25개사가 최종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8일 여경협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팜테크 산업 육성 사업'은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제품·서비스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298개사가 물려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각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중기부와 여경협의 지원을 받던 삼아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본격적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보에 나선다. 이번 공모에는 난임 시술 과정을 표준화한 다바이스부터 집에서 관리하는 질 건강 진단 시스템까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술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AI 기반의 임신·출산·육아 플랫폼과, 불법 촬영 위험을 감지하는 디바이스로 일상 속 여성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는 솔루션도 포함됐다. 여경협은 사업지원금을 통해 파인릿 임상, 실증, 지식재산권 확보와 마케팅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선박가구 매출 3년새 2배 성장

현대리바트 선박가구 사업 순항
컨테이너선 13척 인테리어 계약
지난해 매출 300억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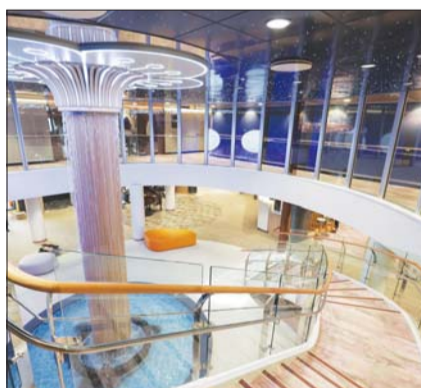
현대리바트의 선박 가구 사업이 3년새 매출이 두배 늘며 순항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최근 경남 거제에 있는 국내 조선소와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박 가구 납품 및 선원 복지 공간 인테리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리바트는 길이 399.98m, 폭 61m로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컨테이너선 13척의 선실과 커뮤니티 라운지, 레스토랑, 시네마룸, 헬스장 등 선원 복지 공간의 인테리어를 설계하고 맞춤형으로 제작한 선박 가구를 공급, 시공할 예정이다.

현대리바트는 이번 계약뿐만 아니라 매년 60척 가량의 선박 인테리어, 가구 공급 계약을 수주하는 등 최근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선박 가구 사업 매출은 300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로 성장했다. 현대리바트는 국내 가구업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0년부터 선박 가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단순 가구만 납품하던 선박 가구 사업



현대리바트가 최근 가구 공급 및 인테리어를 진행한 여객선 실내 전경.

을 공간 인테리어 컨설팅으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선박 내 공간 인테리어 전체를 토탈로 수주 받는 경우 한 척당 매출은 5억~7억원으로, 선박 가구만 납품할 때 발생하는 매출(2억~3억원)보다 두 배 높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선박 가구는 염분과 습기, 진동 등 극한의 해상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까다로운 안전 규정에 부합하는 방염 성능, 그리고 의자를 바다에 탈부착할 수 있게 하는 씨패스팅(Sea-fastening) 등을 고려해 특수 제작해야 하는 분야"라며 "가정용 가구, 선박 가구, 호텔 인테리어 등 각 분야에서 쌓아온 강점과 노하우를 활용해 B2B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한유원, 정책면세점 입점기업 목소리 청취

이태식 대표, 구리 사업장 방문
프리미엄 티 브랜드 '꽃을담다' 찾아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 대표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정책면세점 입점기업 '꽃을담다'를 방문,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8일 한유원에 따르면 꽃을담다는 지난 2016년 설립된 프리미엄 티 제조 전문 중소기업으로, 전국 50여 개 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꽃과 줄기로 만든 프리미엄 꽃차와 허브 블렌딩 티 브랜드 '알디프(Aldi f)'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 전통 차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제

품력을 인정받아 2024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K-수출전략품목'으로 뽑혔고 정책면세점에 입점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태식 대표는 꽃을담다 이인표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지원사업 참여 후기 등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인표 대표는 "올해는 창업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인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유원의 판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